

7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p>01. 김활란의 성장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물포와 기독교 • 이화학당 입학 • 이화학당 대학과 <p>02. 김활란의 여성계몽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YWCA 연합회 • 미국 유학 후 김활란의 활동 • 농촌계몽운동과 두번째 미국 유학 <p>03. 김활란의 일제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참배 강요와 기독교계 학교의 위기 • 조선 여성의 전쟁 동원 • 김활란의 변명 <p>04. 김활란과 여성 정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활란 • 국회의원 선거와 낙선 • 김활란의 정치 활동에 대한 평가 	<p>05. 고향경의 성장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경의 학창시절 • 일본 유학시절 • 미국 유학시절 <p>06. 고향경의 사회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성자매원 설립 • 영아원과 가정료 설립 • 고향경의 친일 협력 <p>07. 고향경의 정치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재건과 국가재건 • 부녀국 초대 국장 • 영국 유엔협회 순회 강연 <p>08. 고향경의 신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어머니회 • 서울여자대학교 설립
-------------	---	---

7주차 |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8차시

고향경의 신념

7주차 | 학습목표



8차시. 고향경의 신념

학습목차	<p>학습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7년 귀국 후 대한어머니회와 서울여자대학교를 창설하고 이끌었던 고향경의 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고향경의 교육 철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p>학습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재건과 국가재건 ■ 부녀국 초대 국장 ■ 영국 유엔협회 순회 강연
-------------	--



대한어머니회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고향경의 행보

- 1957년 귀국
- 195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창설
- 1958년 3월
 -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창립
 - “강력한 국가는 깨달은 어머니로부터”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고향경의 행보

- 대한어머니회
 - 모성보건부 상담실과 모성보건 강습회 운영
 - 피임교육 실시
 - 가족계획협회 출범(1965)에 기여



대한어머니회 대표 고향경과 영부인 육영수(1968)

[출처01] 국가기록원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고향경의 행보

- 대한어머니회
 - 어머니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질 향상과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
 - 교양강좌 및 강습회, 가족계획과 어머니 보건에 관한 사업, 자녀지도를 위한 연구 및 선도 사업, 가정 법률에 관한 연구 및 모권 운동, 소비자보호운동 및 가정경제 합리화를 위한 사업
 - 어머니 대학, 어머니 여름학교, 국어순화 운동, 어머니 합창단, 어머니 무용부, 자전거부, 서예부, 꽃꽂이 교실 등 운영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고향경의 행보

- 1965년
 - 한국여성소비조합 창설 (이사장 고향경)



한국여성소비조합 개원식

[출처02] 국가기록원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대한어머니회의 출소자보호사업

- “순간적인 실수나 불행 가운데서 일을 저질러서 법에 걸리고 처벌을 받아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반성하고 뉘우쳐서 앞으로는 깨끗하고 명량한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을 몇 천 번 몇 만 번 다지면서 교도소 문을 나왔으나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발 붙일 곳이 없을 때 그들은 재범이라는 악순환을 통해 부득이 옛 생활로 되돌아가게 된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대한어머니회의 출소자보호사업

- 어머니는 자기 가정에서만 어머니가 될 뿐 아니라 순수하고 희생적인 모성애로 이 메마른 사회를 운택하게 하는 한 송이 꽃보다 한 인간을 복돋우어 주는 것이 더욱 생을 보람 있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대한어머니회의 출소자보호사업

- 누군가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여 자존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는 명제 앞에 출소자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에 지극히 적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우리 대한어머니회는 1976년을 기하여 출소자보호 사업을 내용으로 용감하게 출범하였다. (……)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1965년 5월 8일, 대한어머니헌장 제정 공포

- “어머니는 아들 딸을 낳아 잘 기르며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며 보다 살기 좋은 세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힘쓴다. 그리하여 여기 어머니 헌장을 마련한다.”



1966년 어머니헌장탑 제막식

[출처03] 국가기록원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사회사업

- ‘모성애의 제도화’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사회사업 방향

- 그 후, 영국에 오래 있을 기회가 생겼을 때 영국에 있는 감화원도 다녀 보았습니다. 다니면서 가만히 살펴보니 미국의 운영방법과는 많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 형편에는 미국의 방법보다 영국식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까지 얻어냈습니다. 1957년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남쪽 바닷가에 백만 평이나 되는 땅을 매입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사회사업 방향

- “오래전 미국에서 「비행 소녀」 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할 때, 미국에 있는 많은 소녀 감화원을 방문하면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학위를 받고 고국에 돌아가면 한국에 가장 효과적인 감화원을 세워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일은 내가 가장 적임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사회사업 방향

- 이곳을 에덴동산처럼 만들고 많은 과일 나무를 심고 꽃들을 가꾸면서 비행 소녀들을 정서적으로 정화시킨 다음 좋은 교육을 시키면, 악마가 아니고 인간일진대 어떻게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한참 바쁘게 뛰어다니며 일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설립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서울여자대학 설립

- 1954년
 - 예수교장로회 총회, 여자대학 운영 제안
- 1960년 12월
 - 서울여자대학교 문교부 인가
- 1961년
 - 서울여자대학교 개교 (초대 총장 고향경)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육 이념

- “민주국가 건설초기에 강력한 도의정신과 기술을 구비한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비추어, 재래의 대량 생산적이며
 지적편중인 대학교육을 지양하고, 지적 교육과 아울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도의실천교육과 기술교육을 선발 받은 극소수에게
 균형 있게 실시함으로써 출세주의, 성공주의, 간판주의를 떠나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육 이념

- 동족과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수준 이하의 사회와 퇴폐된 농촌의 개척자
 선봉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지·덕·술이
 겸비된 여성지도자를 양성함에 있음”



1960년, 서울여자대학교
정초식에서 고향경

[출처04] 국가기록원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8차시 고헌경의 신념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육 이념



서울여자대학교 졸업식 (1965)

[출처05] 국가기록원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8차시 고헌경의 신념



1963 - 1967년

- 고헌경, 대한소년단연합회 회장 역임



대한소년단원들의 모습

[출처06] 국가기록원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8차시 고헌경의 신념



고향경의 국어순화운동 ‘국가발전과 우리말’ 강연

- “우리 인간의 육체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위급할 때 남의 피를 얻어서 수혈할 대도 있고 피부나 내장도 남의 몸에서 떼여다가 이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어 남의 것이 내 것으로 동화될 여유를 두어야하고 또 남의 것이 일부분이어야 하지 무제한 남의 것만 주어 모아서 되었다면 내 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헌경 | 8차시 고헌경의 신념



고향경의 국어순화운동 ‘국가발전과 우리말’ 강연

- 말과 문장에도 인격이 있고 개성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외래적인 것이 침입하여 자주 뜯어고치다 보면 생명이 없는 말과 글이 되고 맙니다.
한 사람의 말이나 글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란 혈액이 통해 있기 때문입니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고향경의 국어순화운동 ‘국가발전과 우리말’ 강연

- 한 국가의 정신이 그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국어 속에 혈맥과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국어가 뒤죽박죽 될 때에는 그 혈맥이 올바르게 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는 거의 치명적일 것입니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다음 차시에서는

-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 박인덕과 임영신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8차시 고향경의 신념



학습정리

- 교육가 김활란과 고향경의 생애와 활동

SOURCES



- [출처01]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ET0026603)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22163&dsid=000000000001&gubun=search>
- [출처02]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ET0067146)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69341&dsid=000000000001&gubun=search>
- [출처03]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ET0027276)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29935&dsid=000000000005&gubun=search#1>
- [출처04]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ET0058787)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50765&dsid=000000000001&gubun=search>

SOURCES



[출처05]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ET0058677)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50548&dsid=000000000002&gubun=search>

[출처0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ET0021883)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29233&dsid=000000000004&gubun=search>

REFERENCE



김활란, 《그 빛 속의 작은 생명》,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1999.
 김정옥, 《어모님 김활란》, 정우사, 1977.
 고향경, 《나는 누구인가?》, 보아스사, 1989.
 고향경, 《인간의 가치》, 보아스사, 1989.
 고향경, 《인도기행》, 을유문화사, 1949.
 고향경, 《구라파기행》, 선문사, 1957.
 림영철, 《바람 고향경 그의 생애와 교육》, 삼형, 1988.
 김성은, 〈일제 시기 고향경의 여성 의식과 가정, 사회, 국가관〉, 《한국사상사학》 36, 2010.
 삼혜경, 〈1950년대 말 아시아재단 서울지부의 연구 지원 사례연구-고향경·이만갑·이효재·이해영의 《한국 농촌가족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9, 2018.
 예지숙, 〈일제시기 김활란의 여성론과 대일협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이태영, 《나의 만남 나의 인생》, 정우사, 1991.
 김은실·김현영, 〈1950년대 1공화국 국가 건설기 공적영역의 형성과 젠더 정치〉, 《여성학논집》 29, 2012.
 장영은, 《변신하는 여자들》, 오월의봄, 2022.
 정현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한국학술정보, 2009.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